

목조선의 수행과 己事究明의 실천방식*

김 호 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요 약〉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이다. 성불은 깨침을 통한 인격과 지혜의 완성이다. 때문에 성불은 인간의 승화 내지 인격의 완성을 상징한다. 이것은 선이라는 불교의 수행법을 통하여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불성 곧 인격을 현실화하고 그것을 타인에게도 실현하도록 이끌어가는 행위로서 종교가치의 실현이다. 여기에서는 목조선의 수행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심탈락의 실천방식으로서 열단계의 수행과정을 설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 소위 인간성의 완성에 대한 수행의 과정 곧 교육의 일례를 고찰하였다. 목조선의 이와 같은 기사구명의 실천방식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서 결국에는 본래적인 자신의 온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본증을 자각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좌선수행을 통한 그 온전한 자각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잠재적인 기능을 이끌어내는 행위로서 목조선이라는 종교교육의 행위를 통한 자아의 실현으로서 불교의 입장으로는 불성의 구현이기도 하다

핵심주제어: 사성제, 목조선, 조사선, 불성, 본증자각, 지관타좌, 현성공안, 신심탈락

I. 서언

불교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분단의 고뇌와 그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고뇌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에 해당하는 태어나고 병들며 죽어가는 현상에 대한 문제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361-A00008)

였다. 먼저 분다는 태어나는 것, 병에 걸리는 것, 죽어가는 것을 보고 들으며 느끼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에 점차 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분다는 늘상 자신이 지금 깃들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로부터 문제를 직시하여 그것을 의식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여 의문으로 삼으며, 그 문제해결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실천하였다.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분다가 접근했던 이와 같은 종교교육의 방식은 점차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사성제(四聖諦)의 교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곧 근본적인 문제인 고에 대한 자각으로서 고성제(苦聖諦), 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고집성제(苦集聖諦), 고를 초월한 궁극의 경지에 대한 고멸성제(苦滅聖諦), 고를 초월한 궁극의 경지를 터득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고멸도성제(苦滅道聖諦)가 그것이었다.

고성제와 고집성제는 현실적인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그 진단을 내린 것이고, 고멸성제와 고멸도성제는 문제해결의 설정과 그 문제해결의 길을 보여준 것으로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으로서 널리 전승되었다. 인간이 고뇌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원만한 방식으로 정착되어 인간의 마음에 대한 구조를 구명하는 원리에까지 적용되었다.

석가모니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초극하고자 하는 고(苦)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집착과 갈애에 의거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러한 집착과 갈애를 벗어나게 되면 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안락한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팔정도의 가르침이었다. 팔정도의 가르침에는 고에 대한 명확한 자각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의 덕목으로서 정견(正見)과 정사(正思)가 제시되어 있고, 고의 원인이 되는 집착과 갈애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의 삶에서 영위하는 올바른 계율의 덕목으로서 정어(正語)와 정업(正業)과 정명(正命)과 정정진(正精進)이 제시되어 있으며, 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선정의 덕목으로서 정념(正念)과 정정(正定)이 제시되어 있다.

이 팔정도에는 정견과 정사의 덕목인 혜학(慧學)에 의하여 고에 대한 자각과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는 정어와 정업과 정명과 정정진의 덕목인 계학(戒學)이 발휘되며, 정념과 정정의 덕목인 정학(定學)에 의하여 고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 초월이 가능도록 해주는 덕목이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팔정도의 교의는 고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그 문제해결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식으로서 불교가 발생했던 최초기부터 불법의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의 기초적인 방식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성제 및 팔정도의 구조는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불성 곧 본성을 이끌어내는 종교의 교육방식으로서 모든 선수행의 기초이면서 필수적인 행위였다.

이제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사성제와 팔정도가 지니고 있는 종교교육적인 행위를 가장 잘 구현한 선수행의 한 갈래로서 중국에서 등장했던 조사선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선의 실천행위 가운데서도 송대에 새롭게 출현했던 목조선을 통하여 그 구조를 제시하고 목조선 수행의 실제로서 기사구명(己事究明 : 자기의 일대사를 해결하는 행위)의 방식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목조선의 선풍에는 인간의 본래적인 숭고한 가치인 불성의 대공정이 바탕이 되어 있고, 목조선의 수행에는 불성에 대한 그 가치가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좌선의 모습을 통하여 가장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불법즉위위(佛法卽威儀)의 이념에 근거하여 일시좌선일시불(一時坐禪一時佛)의 구현이 가능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목조선의 수행이 제시해주는 의의이기도 하다.

Ⅱ. 조사선의 수행방식 - 목조선

선은 석가모니로부터 비롯되었다. 그것은 석가모니가 깨침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채용한 선수행법에 근거한 것이다. 때문에 선의 역사는 불교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 인도 불교의 경우 선의 성격은 마음을 어느 대상에 집중하여 더 이상 마음이 산란하여 흩어지거나 침울하여 무기(無記)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이었는데, 또한 자신의 마음 그 자체에 대하여 작용과 변화의 양상을 관찰하면서 그 대상에 대하여 치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인생과 세계 및 그에 수반되는 갖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서 사마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관찰자 자신의 마음이 일체의 유위법을 만들어내고 변화 내지 조작시켜가면서 무수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아만과 의심 등 번뇌를 일으키는 모습을 분명하게 관찰함으로써 그것은 결국 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터득하여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위빠사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인도불교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선이 발생하고 천 년이 지난 후에 보리달마에 의하여 중국에 전승된 대승선법에 의하여 사뭇 그 양상이 달라졌다. 중국선에서는 선법 자체에 대하여 선만을 위주로 하는 종파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소위 선종이라는 명칭이 가능하였는데 소위 대승선법(大乘禪法) 내지 최상승선법(最上乘禪法)을 의미하는 조사선이 그것이다.¹⁾ 대승선법 내지 최상승선법의 성격은 본래불(本來佛)에 대한 자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법의 가르침에 의해 불교의 근본적인 취지를 깨우쳐서 중생은 붓다와 동일한 진성을 지니고 있지만 단지 외부에서 오는 망상에 뒤덮여 그 진성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라

1) 이 경우 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달마의 어록에 등장한다. 『少室六門』 [二種入], (大正藏48, p.370上) “부처님 심법의 종지를 깨우쳐, 평등하여 차별과 그릇됨 없고, 이해와 실천이 서로 계합되면, 그것을 바야흐로 조사라 하네. 明佛心宗 等無差誤 行解相應 名之曰祖”

고 확신하는 것이다.”²⁾는 달마의 법어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달마의 법어 가운데 이입(理入)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해 있는 위의 동일진성(同一眞性)의 근거는 곧 일체중생을 제도하려는 대승불교의 이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사선에서 조사의 개념은 완전한 인간성의 구현으로서 일체중생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였다. 이에 개개의 인간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출발한 조사선은 본래성불(本來成佛)³⁾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구현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조사선의 실천개념은 무엇보다도 개별적인 인간의 가치를 최대한도로 이끌어내어 그것을 각자의 종교체험으로 승화시켜 나아갔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다. 소위 중국에서 형성되고 전개된 조사선풍은 바로 본래성불의 경증인 불성⁴⁾을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해명의 방식으로 등장한 선풍으로서 기존의 관법(觀法) 위주의 선풍으로부터 후대에 묵조선(默照禪)과 간화선(看話禪)이라는 수행의 방식을 출현시켰다.

이 가운데 묵조선은 조사선풍 가운데서 수행의 방식에 근거한 용어로서 북송 말기부터 남송 초기 시대를 살았던 진혈청료(眞歇清了 : 1088-1151)와 굉지정각 : 宏智正覺 1091-1157) 등에 의하여 크게 현창되었다.⁵⁾ 이와 같은 묵조의 수행가풍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당나라 시대의 순수한 면모를 상실해버리고 송대에 드러났던 악성적인 조사선풍에 대한 폐해를 자각하면서 이전 시대에 형성된 순수한 조사선풍으로 회복하려는 시대적인 자각이 근본이었다.⁶⁾

그와 같은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그 접근방식의 양상은 자신의 번뇌를 탈각하여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간화선적인 측면으로서 화두(話頭)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본래부터 번뇌는 공한 까닭에 묵조좌선을 통하여 본래청정심을 자각하는 측면에서 추구하는 묵조선적인 방법의 두 가지로 출현되었다. 전자는 대혜를 중심으로 전개된 간화선의 수행법이었고 후자는 진혈과 굉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묵조선의 수행법이었다.

묵조선에서 묵·조라는 용어의 연원은 일찍이 『조론』에서 엿보인다. 거기에서는 “성인의 현묘한 마음이 묵조하면서 이치가 극에 도달하면 무와 동일해진다.”⁷⁾고 말했다. 이에 대한 주석서에서는 “현묘한 마음은 마음이 현묘한 이치에 계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묵·조는 은밀하게 깊은 깨침의 모습을 조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⁸⁾고 말했고, 또한

2) 『少室六門』 [二種入], (大正藏48, p.369下) “謂藉教悟宗 深信含生同一眞性 俱爲客塵妄想所覆 不能顯了”

3) 本來成佛이라는 말은 조사선법의 사상적인 근거로서 이 용어는 『원각경』의 [금강장보살장], (大正藏17, p.915上)에서 직접적으로 연유한다. “始知衆生本來成佛 生死涅槃 猶如昨夢”

4) 이 경우 열반은 滅度로서 번뇌의 소멸과 더불어 깨침이 완성된 상태라면, 불성은 열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로서 본성, 자성, 청정성 등 중생과 성인에게 무차별하고 본래적인 의미로 상징되었다.

5) 김호귀, 『묵조선연구』, (서울 : 민족사. 2001) pp.120-145 ; pp.172-175.

6) 김호귀, 『간화선의 성립배경』, (서울 : 『보조사상』 제19집. 보조사상연구원. 2003.2) p.24. ; 김호귀, 『묵조선의 성립배경』, (서울 : 『한국불교학』 제37집. 한국불교학회. 2004.6) p.105. 참조.

7) 僧肇, 『肇論』 [答劉遺民書], (大正藏45, p.156上) “夫聖人玄心默照, 理極同無”

“허심은 집착이 없는 상태이고 묵·조는 은밀하게 통하는 상태이다.”⁹⁾고 말했다. 이러한 묵·조의 용어에 대하여 평지는 묵과 조의 의미로 그 의미를 새롭게 확장하여 해석하였다.¹⁰⁾ 곧 묵은 침묵이고 좌선으로서 체의 측면으로 간주되었고, 조는 관조이고 성성(醒醒)으로서 용의 측면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묵조는 평지정각의 『묵조명』¹¹⁾에 그 의미가 드러나 있다. 그 묵조의 사상적인 원류에 대해서는 『달마다라선경』에서 말하는 “선에 지가 없으면 그 적을 궁구할 수가 없고 지에 선이 없으면 그 조를 깊게 할 수가 없다. 그런즉 선과 지의 요체는 조와 적을 가리킨 것으로서 상제의 입장에 있다. 때문에 조는 적을 벗어나 있지 않고 적은 조를 벗어나 있지 않다.”¹²⁾는 대목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선이 없으면 지가 없고 지가 없으면 선이 없다. 그런즉 선은 지가 아니면 조할 수가 없고, 조는 선이 아니면 올바르게 성립될 수가 없다.”¹³⁾고도 말하고, “대저 삼업의 발흥은 선과 지를 종지로 삼는다.”¹⁴⁾고도 말한다. 여기에서 선과 지의 관계는 곧 묵과 조의 관계로 설정되어 선은 체의 측면으로 기능하고 지는 용의 측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묵조선의 이와 같은 본래성불 사상의 전통은 청원행사(靑原行思)의 법맥을 중심으로 조동종지로 계승되었다. 중국의 조동종풍은 그 초창기에 지극히 미미하였지만 송대 중기부터 점차 세력을 만회하였다.¹⁵⁾ 이러한 조동의 가풍은 제10세에 해당하는 평지정각에 이르러 묵조선의 형성을 통하여 크게 발전되었다. 평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묵조선의 구조는 본증자각(本證自覺)·지관타좌(只管打坐)·현성공안(現成公案)·신심탈락(身心脫落)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8) 元康, 『肇論疏』 卷中 [般若無知論], (大正藏45, p.186中) “玄心謂心合玄理也 默照謂潛照幽微也”

9) 元康, 『肇論疏』 卷下 [涅槃無名論并表上秦主姚興], (大正藏45, p.197上) “何則夫至人虛心默照下釋所以不出不在也 虛心者無執 默照者潛通也”

10) 김호귀, 『默照銘에 나타난 묵과 조의 개념』, (서울 : 『선문화연구』 제8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0.6)

11) 『宏智廣錄』 [默照銘], (大正藏48, p.100上-中) 묵조라는 용어는 단순히 묵묵히 비추어본다는 수식 내지 한정된 관계가 아니라 묵과 조의 병렬적인 의미이다. 곧 묵조는 다양한 어구로 나타나면서도 본래의 묵조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묵조는 묵묵한 좌선으로서의 수행을 가리키는 묵과 曠劫에 두루 비추지 않음이 없는 證上에서의 공능인 조를 상징한다. 그리하여 묵조가 각각 묵은 조가 상징된 묵으로서의 作爲의 현성이라면 조는 묵을 수반하는 조로서의 無作爲의 현성이다

12) 佛陀跋陀羅, 『達摩多羅禪經』 卷上, (大正藏15, p.300下) “禪非智無以窮其寂 智非禪無以深其照 然則禪智之要 照寂之謂 其相濟也 照不離寂 寂不離照”

13) 僧叡, 『關中出禪經序』 第十三, (大正藏55, p.65中) “無禪不智無智不禪 然則禪非智不照 照非禪不成”

14) 慧遠, 『廬山出修行方便禪經統序』 第十四, (大正藏55, p.65中-下) “夫三業之興 以禪智爲宗”

15) 김호귀, 『조동선요』, (서울 : 석란. 2007) pp.90-91.

Ⅲ. 기사구명의 실천방식

목조선에서 좌선의 의미는 단순한 좌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도불교에서 좌선은 앉은 자세로 참선한다는 의미가 강하였다. 그러나 선법이 중국으로 전승되면서 좌선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일반적인 선수행을 지칭하였는가 하면 수행의 전반적인 행위 나아가서 깨침의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다. 목조선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좌선의 자세와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는데 그것이 곧 지관타좌이다. 그 바탕에는 본각적인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좌선의 실천은 실유불성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서 목조선 수행방식의 근간이 되어 있다. 이에 목조선의 수행에서 기사구명의 방식은 좌선의 수행을 통하여 신심탈락으로 구현되어가는 모습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1. 지관타좌 - 좌선의 수행

목조선의 수행에서 본증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요구되고 제시된 것이 곧 좌선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번뇌와 분별을 여윈 작용으로 현성시키는 것이 곧 비사량(非思量)의 심리이다. 여기에서의 좌선은 단순히 앉음새만의 형태가 아니라 전시각(全是覺)의 현성이다. 당연히 가부좌로 드러나 있는 몸의 자세(只管打坐)와 함께 자각으로서의 마음의 자세(非思量)이다. 이런 점에서 목조선의 수행은 좌선 곧 가부좌가 중시된다. 그래서 가부좌는 목조선 수행의 특징이고 깨침이라는 점에서 지관타좌라 한다. 곧 가부좌는 수행의 형식이면서 본증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부좌는 목조선의 수행의 형식임과 동시에 깨침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가부좌는 자각된 가부좌로서 그 위위가 단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서 드러나있는 까닭에 불법즉위의(佛法卽威儀)이다. 또한 관조하는 모습의 가부좌로서 거기에는 조가 수반되는 묵의 모습이고 좌가 수반된 묵의 모습이다. 때문에 『목조명』에서는 묵과 조의 관계를 조중실묵 편견침릉(照中失默 便見侵陵)이라 하여 묵조의 좌선에서 묵을 상실한 조의 경우는 온갖 번뇌의 침범을 받고, 또한 묵중실조 혼성잉법(默中失照 渾成剩法)이라 하여 조를 상실한 묵의 경우는 어지럽게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였다. 평지는 곧 묵조의 가풍이야말로 중도를 지향한다¹⁶⁾고 말하여 가부좌의 의의를 묵조의 속성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묵조의 가풍이 주도면밀하여 묵(默)으로서는 구(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照)로서는 규(規)에 어긋나지 않는 중도임을 가리킨다.

때문에 목조선의 수행에서 가부좌는 곧 깨침의 현성이므로 이미 깨쳐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행[本證妙修]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가부좌의 모습은 깨침의

16) 『宏智廣錄』 卷8, (大正藏48, p.100中) “吾家底事 中規中矩”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깨침의 현현으로서 몸의 구조이면서 마음의 구조이다. 이러한 가부좌야말로 목조가 나타내는 일상성이고 본증성이다. 그래서 올바른 수행은 올바른 가부좌이고, 올바른 가부좌는 올바른 수행이며, 올바른 좌선은 올바른 깨침이다. 좌선 그대로가 깨침의 작용이므로 일시좌선은 일시불이고 일일좌선은 일일불이다. 즉 좌선즉불이요 불즉좌선이다. 이것이 지관타좌로서의 가부좌가 나타내는 본래 의의이다.

이것은 본래성불에 대한 깨침을 의미하는 본증자각(本證自覺)으로서 그 이면에는 반드시 본래불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요구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혜의 “그러나 이러한 깨침의 도리는 사람들마다 두루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다.”¹⁷⁾는 말은 그 근본이 본각문에 입각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평지의 경우는 일상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이미 성취되어 있는 각의 상태로 간주하여 시각(始覺 : 無言默然)의 상태가 그대로 본각(本覺 : 威音王那畔)의 모습이라 말한다.¹⁸⁾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심이 구축되어 있음을 전제로 삼은 것이다. 각자가 이미 본증인 줄을 자각하는 수행을 통해서 깨친 존재인 부처를 닮아가는 행위가 곧 목조의 참구행위이다. 따라서 목조에서의 무분별의 참구는 외부로 치달리는 마음을 멈추고 본래구족한 자기의 본래성을 돌이켜서 자각하는 것으로 일상의 모든 행위를 본증의 현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달리 일체중생실유공안(一切衆生悉有公案)의 입장이었다.¹⁹⁾

이것이 목조선의 심리적인 측면으로는 비사랑이라는 무분별의 좌선으로 제시되어 있다. 비사랑이란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되 사랑의 대상이 다른 아닌 바로 자기 자체임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기와 대상 사이에 분별이 없는 사랑이다. 곧 의식이라든가 무의식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고정적으로 구별하여 보지 않는 순수직관이 다.²⁰⁾

2. 신심탈락 - 기사구명으로서 공안의 현성

목조선의 수행은 자신에 대한 근원을 추구하는 선수행으로서 자기의 일체행위를 통하여 전개되는 방식인 까닭에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간성의 본래모습을 구현하는 것으로 귀일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근원을 터득하는 것인데 그 주체는 다름아닌 자기의 몸

17) 蘊開, 『大慧語錄』 卷18, (大正藏47, p.888上) “然此事 人人分上 無不具足”

18) 『宏智廣錄』 卷5, (大正藏48, p.64中)

19) 조사선의 도리는 흔히 言語道斷 心行處滅 教外別傳 不立文字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목조선의 도리는 가령 現成公案처럼 모든 도리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 특징이다. 公案이라는 용어는 간화선의 수행법에서는 話頭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지만, 목조선 수행에서는 깨침 내지 진리의 의미로 활용되는 개념이다.

20) 일찍이 약산유엄은 不思議에 대한 사랑이 바로 좌선에서의 비사랑임을 보여 주고 있다. 부사랑이 사랑의 부정행위라면 무사랑은 사랑의 부정적인 존재방식이다.

이고 마음이며 코와 입의 감각기관이다.²¹⁾ 이 경우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감각기관의 궁극에는 그 행위마저도 다시 닦아야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지니는 것이 묵조선의 수행에 들어가는 제일의심(第一義心)이고, 그 제일의심을 지니기 위한 몸과 마음의 자세와 작용이 다름 아닌 좌선입정(坐禪入定)의 행위이다.

좌선은 우선 몸을 통하여 마음과 호흡으로 하는 행위인 만큼 몸으로는 앉아 있는 자세와 마음으로는 관찰하는 대상에 대하여 심신(深信)하려는 각오와 기를 원활하게 조절하는 호흡의 안정이 근본이다. 호흡의 바탕은 수식관(數息觀) 내지 지식관(止息觀)으로서 이것이 성취된 경우가 곧 호흡에 대한 자각으로서 호흡삼매이다.²²⁾ 호흡이 갖추어지면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것이 발심이다. 따라서 발심에 대한 완성 곧 믿음의 자각은 애초부터 본증의 사실을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것을 체험하는 행위이다.²³⁾

믿음의 자각을 체험한 연후에는 그것이 단순한 공이 아님을 자각하는 공삼매를 추구한다.²⁴⁾ 여기에서 발심은 수행하는 행위이고 수행하는 행위는 발심인데 수행과 발심이라는 분별마저도 초월된 상태이다. 곧 중생이 소멸되어 중생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첫걸음은 중생성을 비우는 행위이다. 중생성을 비우는 행위를 공이라 말하는데 여기에서 공이란 중생이 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공이다. 곧 중생을 벗어나는 것이란 다름아닌 중생성을 깨치는 것이다.²⁵⁾ 중생성을 깨친다는 것은 “제불이 출세한 것은 중생을 직접 제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생사와 열반이라는 분별심을 제도하려는 것이다.”²⁶⁾는 말처럼 중생의 속성이 공하다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수행의 요체는 다만 범부라는 생각을 없애는 것뿐이지 별도로 부처의 견해를 추구할 것이 없다.”²⁷⁾는 것으로서 소위 발심의 완성이 된다.

21) 가부좌를 하는 몸과 묵조를 하는 마음과 호흡을 하는 입과 코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주체가 결여된 행위는 단순한 물입 내지는 마음의 방종이다. 외물에 대한 무비판적인 긍정이다. 곧 자신의 체험이 철저화되지 않은 영원한 객이다.

22) 호흡은 몸을 추스르는 작용만이 아니라 정기를 유지하는 행위이고 마음의 麤·細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와 같은 호흡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진행되지만 점차 완속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런 호흡이 되는 경지를 말한다.

23) 김호귀, 『선과 수행』, (서울 : 석란, 2008) pp.258-259.

24) 이와 같이 묵조의 공안과 좌선은 현성과 탈락이라는 공능으로 나타나 있다. 바로 현성과 탈락의 근원에는 반야공관이 뒷받침되어 있다. 곧 묵과 조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緣起相依는 현성과 탈락이라는 중중무진의 相即으로 통하며, 그 현성과 탈락의 전개양상은 제법무아의 도리에 통한다.

25) 중생 그대로가 공이지 중생을 벗어난 공이 아니다. 중생은 공의 중생이고 공은 중생의 공이다. 비유하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낮이 오기 전에 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곧 밤의 낮이고 낮의 밤으로서 낮과 밤은 둘이되 둘이 아니고(二而不二) 둘이 아니되 둘이다.[不二而二]

26) 鳩摩羅什 譯, 『思益梵天所問經』 卷1, (大正藏15, p.36下) “諸佛出世 非爲度衆生 只爲度生死涅槃二見耳”

27) 道原, 『景德傳燈錄』 卷14, (大正藏51, p.313中) “乃復問如何保任 悟曰 任性逍遙隨緣放曠 但盡凡心 無別勝解” ; 大川普濟 集, 『五燈會元』 卷7, (卍續藏經138, p.229上) “復問 如何保任 皇曰 任性逍遙 隨緣放曠 但盡凡心 別無聖解”

이에 스스로 만들어 낸 발심의 완성이기도 한 믿음을 좌선삼매를 통하여 부단히 검증하고 마침내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다.²⁸⁾ 이 믿음은 절대고요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다. 절대고요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긍정으로서 좌선의 상태를 통한 몸의 고요가 바탕이 된다.²⁹⁾ 그 고요한 체험에서 일체의 소리가 배제되고 정념(正念)에 들어간다. 그 정념은 무아의 체험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공의 체험이다. 이것이야말로 공안을 자각하는 것이다. 분별이 없는 전일한 사랑 곧 비사랑의 체험으로서 망념이 사라진 본래믿음의 현성이다.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적정하게 되어 궁구하는 자신과 하나가 되면 믿음이 더 이상 형상이 없는 도리인 줄을 알아 안심입명(安心立命 : 달마가 내세운 깨침의 상태로서 마음이 인정되고 일상의 삶이 여법하게 유지되는 모습)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평등과 청정의 구현이다. 항상 이러한 마음 상태의 경험이 분별과 번뇌의 소멸상태이기 때문이다.³⁰⁾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하여 언제부터인지 무슨 모습으로든지 어떤 작용으로든지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체험이야말로 자신의 본중에 대한 본래인의 자각행위로서 기사구명(己事究明)의 자각이다. 그 기사구명의 자각은 필연적으로 공안이 현성된 상황인데 공안의 현성은 좌선하는 모습에 늘 그렇게 올곧게 드러나 있다.³¹⁾ 좌선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공안이 현성되고, 그 현성된 공안이 다시 좌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안은 탈락 곧 초월된 공안이다. 그래서 공안은 진리이면서 깨침의 현성이고 깨침의 탈락방식이다. 이처럼 묵조의 좌선은 묵과 조의 좌선이다. 묵의 좌선이 이 몸으로 단좌하는 것이라면 조의 좌선은 깨어 있는 마음의 작용이다. 몸과 마음이 좌선이라는 행위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묵과 조는 몸과 마음의 조화이고 몸과 마음의 일체작용이다. 몸과 마음이 조화 내지 작용의 일체를 보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락이라는 수행이 필요하다. 탈락은 벗어나고 초월하며 집착이 없으면서 본래작용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28)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란 주체적인 믿음이다. 곧 좌선삼매 속에서 자기의 본래면목을 들어 궁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궁구하는 데에는 온통 자신을 송두리째 그 대상 곧 자기를 궁구하는 행위에 들이밀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자각이다. 그러나 끝내 자신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자신이 만들어 낸 믿음에 대하여 다시 숙고해 보아야 한다.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각도를 달리하여 용의주도하고 주도면밀하며 세밀하고 깊게 다시 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본래면목이라는 주제에 대한 믿음을 달리하여 다시 궁구하는 것이다.

29) 절대고요의 체험은 심신의 동요가 사라진 상태이다. 이 체험은 자신의 탈락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아의 터득이다.

30) 김호귀, 『조동선요』, (서울 : 석란, 2007) pp.284-285.

31) 공안의 현성은 지금 · 여기에서 · 이렇게 · 자신이 좌선하고 있는 줄을 자각하는 행위이다. 곧 공안의 자각이요 자각된 공안이다. 여기에서 공안은 자신이다. 때문에 자신이라는 공안의 자각이고 자각된 공안의 자신이다. 이로써 자신과 공안과 자각은 각각 卽入의 관계로서 자신에게서 자각된 공안이고 공안으로 자각된 자신이며, 자각된 공안을 구비한 자신이고 공안이 자신으로 자각된 것이며, 자신의 공안을 자각한 것이고 자각된 자신이 공안으로 드러난 것이다.

작용이다. 그래서 신·심탈락(身·心脫落)이란 신과 심이 자기로부터 탈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³²⁾

몸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탈락의 양상은 필연적으로 감각의 탈락을 수반한다. 색과 형체를 보고 소리와 들으며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촉감을 느끼고 여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고 인식하는 일체의 것으로부터 초연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안·이·비·설·신·의 등 감각의 탈락에는 몸으로부터의 탈락이면서 마음으로부터의 탈락이면서 언설의 탈락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좌선을 통해 경험된 감각의 탈락은 달리 좌선의 탈락형태이기도 하다. 좌선이 탈락된 형식으로 보고 들으며 맡고 맛보며 느끼고 체험한다. 때문에 좌선은 곧 신심의 탈락이고 감각의 탈락이기도 하다. 탈락된 신심과 탈락된 감각과 탈락된 언설은 좌선을 통해서만 드러나는데, 이처럼 드러나 있는 모습이 공안의 현성이다. 따라서 공안의 현성 곧 현성공안은 좌선탈락의 모습이면서 좌선탈락의 내용이다.³³⁾

이와 같은 묵조선의 수행방식은 자기의 신업과 구업과 의업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행위로 드러나 있는데 그 기사구명을 터득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사구명의 과정

순서	수행의 구조	기사구명의 실천방식
1	제일의심	몸과 마음과 언설의 자각
2	좌선입정	몸과 마음의 청정
3	호흡삼매	수식관 및 지식관
4	발보리심	믿음의 자각
5	지관타좌	좌선삼매
6	절대고요	자기에 대한 대공정
7	무아체험	공삼매의 터득
8	본중자각	묵조의 심리 - 비사량의 체험
9	현성공안	묵조의 지속 - 일행삼매의 현성
10	신심탈락	묵조의 현성 - 신심의 초월

32) 身의 탈락이란 자신이 이 몸 그대로를 지니고 유지하면서 몸의 당체와 작용과 유흥과 번뇌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몸의 유지와 작용에 대하여 장애가 없는 상태이다. 心の 탈락이란 身과 함께 상호 작용 속에서 유지되는 心이면서도 동시에 身의 구속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身과 心이 탈락된 형태가 공안의 현성이고 身·心의 현성인데 탈락은 좌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身·心의 어떤 탈락행위도 좌선을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다. 좌선은 身과 心의 형식이고 내용이며서 가치이고 작용이기 때문이다.

33) 김호귀, 『묵조선』, (경기도 : 도피안사. 2012) pp.355-369. 참조.

IV. 결어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를 최대한도로 드높이고, 그 완성에 해당하는 개념을 부처로 간주한다. 때문에 부처는 인간의 승화 내지 인격의 완성을 상징한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불교의 가르침은 대단히 풍부하다. 일례로 일체중생 실유불성의 가르침이 널리 보편화되었다. 그 실유불성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선이라는 수행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접근하고 체험하는 행위로서 종교의 심성을 구현해주는 교육의 일레이기도 하다.

때문에 묵조선의 수행에서는 교육적인 행위로서 우선 자신의 본성은 본래부터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인식 곧 본증자각을 그 사상적인 바탕으로 출발한다. 그것을 구체적인 몸의 교육으로 드러내보인 것이 좌선의 행위로서 지관타좌였다. 때문에 묵조선에서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사구명에서 좌선의 행위는 단순한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좌선 자체가 깨침이라는 인격의 완성을 드러내주는 궁극의 경지이기도 하다. 그것을 자신의 몸과 호흡과 마음에서 배우고 익히며 체험하는 행위가 다름아닌 신심탈락이라는 묵조선의 수행덕목이면서 동시에 깨침이다.

이런 점에서 신심탈락은 조사선 특히 묵조선의 수행에서 일체의 중생이 본래성불이라는 명제로부터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현성시켜 나아가는 선풍의 구체적인 실천행위로서 중시되었다. 왜냐하면 묵조선은 본래부터 성불의 존재임을 자각하는 본증자각과 그것을 자신의 행위인 좌선으로 구현하는 지관타좌와 모든 장소와 시절에 작용하는 현성공안과 자신의 몸과 마음의 구속으로부터 초월하는 신심탈락을 그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묵조선 수행의 구조에서 몸의 묵조좌선을 통해서 본래불의 속성을 자각하고 비사량의 체험을 통하여 깨침을 자신에게서 온전하게 현성하는 수행의 과정이야말로 정작 자신의 완성을 지향하는 기사구명의 실천과정이고 방식이다. 따라서 묵조선의 수행은 곧 본래불의 믿음을 성취하여 발보리심을 완성하고 그 마음을 근거로 좌선을 몸에 익혀서 궁극적으로 몸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탈락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묵조선의 이와 같은 기사구명의 실천방식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지만 결국에는 본래적인 자기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본증을 자각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것을 종교교육의 입장에서 보자면 묵조선 수행의 요체인 좌선수행 곧 지관타좌는 종교교육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온전한 자각인 본증자각은 인간 본연의 잠재적인 기능을 이끌어내는 종교가치의 실현으로서 자아의 실현에 해당하는 불성의 구현이기도 하다. 그것이 묵조선의 수행에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일상에서 구현되는 것이 다름아닌 신심탈락인데 그것을 성취해가는 열 가지 단계의 체험은 불교의 교육방식이기도 하면서 묵조선에서 내세우는 신심탈락의 방식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佛陀跋陀羅, 『達摩多羅禪經』, 大正藏15.
鳩摩羅什, 『思益梵天所問經』, 大正藏15.
『少室六門』 [二種入], 大正藏48.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大正藏17.
僧肇, 『肇論』 [答劉遺民書], 大正藏45.
元康, 『肇論疏』 卷中 [般若無知論], 大正藏45.
元康, 『肇論疏』 卷下 [涅槃無名論并表上秦主姚興], 大正藏45.
『宏智廣錄』 [默照銘], 大正藏48.
慧遠, 『廬山出修行方便禪經統序』, 大正藏55.
僧叡, 『關中出禪經序』, 大正藏55.
蘊聞, 『大慧語錄』, 大正藏47.
道原 纂, 『景德傳燈錄』, 大正藏51.
大川普濟, 『五燈會元』, 卍續藏經138.
김호귀, 『선과 수행』, (서울 : 석란. 2008)
_____, 『묵조선』, (경기도 : 도피안사. 2012)
_____, 『조동선요』, (서울 : 석란. 2007)
_____, 『묵조선연구』, (서울 : 민족사. 2001)
_____, 「간화선의 성립배경」, (『보조사상』 제19집. 보조사상연구원)
_____, 「묵조선의 성립배경」 (『한국불교학』 제34집. 한국불교학회)
_____, 「默照銘에 나타난 묵과 照의 개념」, (『선문화연구』 제8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고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일: 2013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연구자 소개: 김호귀

① 전공: 선학 / 동국대 불교학술원

② 관심영역: 선사상, 선문헌, 선종사, 선문화

③ 주요논저: 『묵조선 연구』, 『금강선론』, 『금강삼매경론』, 『인물한국선종사』 외 다수.

④ Email: kimhogui@hanmail.net

Abstract

Practice of Penetration about One's Original Buddha-mind in Silent-Penetrate Seon

Kim, HoGui

Academy of Buddhist Stuidies

The purpose of Buddhist practice is attaining Buddhahood. Attaining Buddhahood means the perfection of personality and wisdom through enlightenment. There are much of teachings in Scriptures. For example, “all sentient beings have the Buddha nature” according to the Maha parinirvana-sutra 27. This phrase means full of Dharma-kaya in the universe, all sentient beings are equality and all sentient beings have the Buddha nature. Here we can looked around relation the view practice-enlightenment about Silent Penetration-Seon & All beings posses Buddha-nature. First, the Self-awakening of the Original-Enlightenment applies to the Essential Body are all-pervasive with all beings. Second, the Solely for sitting-poster applies to the Tathata(眞如) are equality with all beings. Third, the Free itself of body & mind applies to the Posses of buddha-genus with all beings. Silent-Penetrate Seon is formed in Song dynasty based on this phrase by zen master HongZhi. Silent-Penetrate Seon organized as follows : Self-awakening of the Original-realization(本證自覺), Revelation of Enlightenment(現成公案), Free itself of body & mind (身心脫落) and Solely for sitting-poster(只管打坐). To put it another way, Free itself of body & mind is embodiment of inward training our body and our mind in daily life, through the Sitting-samadhi(坐禪三昧). Because of Daily life is consider for training and act of enlightenment in Silent-Penetration Seon. It may be given as a conclusion that the training system of Silent-Penetration seon are the Self-awakening of original enlightenment, the Un-thought and the Solely for Sitting-poster. Here we have a program for Practice of Penetrate one's original buddha-mind in Silent-Penetrate seon.

Key words: Silent-Penetrate Seon, Spiritual-awakening for Enlightenment, Solely for Sitting-poster, Absolute-silence, Experience of self effacement, Self awakening of the Original-realizatrion, Revelation of Enlightenment, Free itself of Body & Mind

No.	structure of practice	experience of practice
1	First-mind for practice	Ready for body, mind and speech
2	Entrance for sitting-meditation	Purification for body, mind
3	Samadhi of breathing	Observation for breathing
4	Spiritual-awakening for enlightenment	Ready for faith
5	Solely for sitting-poster	Sitting-samadhi
6	Absolute-silence	Absolute-affirmative for self
7	Experience of self effacement	Grasp of sunyata(空)
8	Self-awakening of original-realization	Experience of Un-thought
9	Revelation of Enlightenment	Samadhi of Only-sitting
10	Free itself of body & mind	Transcendency of body and mind